



일본 시마네현의 국제교류

전영평 · 황정홍

1. 머리말

일본의 국제화는 1950년대 중반 이후 고도 성장기에 그 출발점을 두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1950년대부터 최저주민수요의 충족과 개성 있는 마을 가꾸기의 일환으로 국제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1970년대 들어 일본은 외환보유의 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역할에 대한 해외의 비판이 높아지게 되자, 경제일변도 정책에서 저개발국가에 대한 출자 협력, 환경문제에 대한 공헌 등으로 정책전환을 시도하였다. 1980년대 중반부터는 엔고가 더욱 가속화되어 일본의 경제적 지위가 향상되었으며, 정부가 내수진흥책을 취한 결과 고향창생(故郷蒼生)사업 등 지방진흥정책도 활성화되었다. 또한 경제수출과 문화수입이라는 형태로 세계에 공헌해야 한다는 의견도 대두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제화 또는 국제교류란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것은 최근 10여 년의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추세에 따라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도 나름대로의 국제화 전략을 구사하여 점차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교류내용도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 등 광범위한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장영구, 1995). 이 글에서는 국제화에 따른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비교 사례로서 일본 시마네현(島根縣)의 국제교류제도와 실태를 조직, 인력, 예산 및 사업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전영평은

조지아대학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고
현재 대구대학교
자치행정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다.

ypchun@biho.taegu.ac.kr

황정홍은

현재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다.

한다(島根縣, 1997a; 1997b).

2. 국제교류조직

1) 행정조직과 기능

시마네현(島根縣)의 국제교류업무는 총무부 내의 국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제과는 1995년도에 설치된 것으로 이전까지는 총무과 내의 문화국제실에서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였다. 문화국제실에는 국제교류계와 문화계가 설치되어 있어 업무상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총무과 소속 하에 있어서 대외적으로는 독립성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국제교류업무가 증가되고 그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현(縣)에서는 문화국제실을 총무부 소속의 국제과로 확대·개편하고 그 밑에 국제기획계와 국제교류계를 두고 있다.

국제과의 업무는 국제교류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업무, 해외 이주에 관한 업무, 섭외에 관한 업무, 여권에 관한 업무, 국제교류사업에 관한 업무(타과 소관 제외), 외국인 등록에 관한 업무, 재단법인 시마네현 국제교류센터 업무운영의 지도에 관한 사무 등이다. 이를 계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국제기획계는 국제화 추진사업의 종합기획 및 조정, 한국·러시아와의 교류, 아시아·아프리카·구미·오세아니아 각국과의 교류, 동북아시아 자치체회의 및 연합에 관한 업무, 시정촌(市町村)의 국제교류 지원, 재주외국인 및 해외파견직원 관리, 현민의 국제이해 촉진, 국제교류센터 및 자치체국제화협회 관련업무, 여권 및 외국인 등록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둘째, 국제교류계는 국제교류단체 지원 및 국제협력, 중국과의 교류 및 동북아시아지역의 문화교류사업, 해외현민회(海外縣民會) 및 현인회관(縣人會館) 지원사업, 외국청년초치사업(招致事業) 및 국제교류원 관련업무, 해외기술연수원과 현비(縣費)유학생 수입사업 및 지원, 현도사(縣島使) 및 시마네연수관 관련업무, 국제연합 관련업무, 국제교류마을 조성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다.

2) 지원조직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를 지원하는 조직으로는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과 전국의 시정촌(市町村)이 공동출연하여 설립한 '자치체국제화협회'와 '지역국제화협회'를 들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국제협력사업단 및 국제교류기금(Japan Fund) 등도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중요한 조직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중앙정부차원에서 조정, 통제 및 조언을 해주는 조직으로는 자치성과 외무성을 들 수 있다.

(1) 자치체국제화협회

자치체국제화협회(CLAIR :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는 지역의 국제화를 지원하고 이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하여 47개 도도부현과 전국 시정촌의 공동 출연에 의하여 1988년 7월에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지방공공단체의 공동조직이다. 이 협회는 동경에 본부를 두고, 도도부현과 정령지정도시(政令指定都市)에 지부를 두고 있으며 세계 주요 도시에 해외사무소를 설치하고 있다. 해외사무소로는 1989년 4월에 뉴욕사무소 개설을 시작으로 런던, 파리, 싱가포르, 서울, 시드니 등 6개 도시에 각각 사무소를 개설하고 있다.

협회의 조직은 의사결정기관인 이사회와 회장단을 비롯하여 3부 6과를 두고 협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이 있으며, 이외에도 3개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협회의 업무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¹⁾ 협회회장은 전국지사회(全國知事會) 회장인 동경도지사가 맡고 있으며, 부회장은 전국시장회(全國市長會) 회장, 정령지정도시를 대표하는 시장과 전국정촌회(全國町村會) 회장 등 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협회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해외사무소의 전개, 국제교류사업의 실시, JET 프로그램(Japan Exchange and Teaching Programme)의 실시, 국제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육성, 지역의 국제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자치체국제화포럼 및 CLAIR 보고서 발행, 국제화강사정보(國際化講師情報) 보급사업, 지역국제화협회에의 지원 등이 있다(自治體國際化協會, 1994).²⁾

(2) 지역국제화협회

지역국제화협회는 자치성의 지침을 근거로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지역국제교류추진대강에 의거 설치한 조직으로서 지역의 국제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핵심적인 민간 국제교류조직이다. 각 지역의 지역국제화협회는 현 및 시정촌, 민간(기업 및 단체 포함) 등의 공동출자에 의한 재단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명칭은 지역별로 국제교류협회, 국제교류센터, 국제센터 등으로 다양하나 대부분이 국제교류협회로 되어 있다.

시마네현의 경우는 '(재)시마네현국제교류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하여 오다가 1995년 8월 시마네현무역협회를 합병하여 '(재)시마네국제센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³⁾ 재단법인 시마네국제센터의 조직을 보면 의결기구인 이사회와 집행기구인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다.⁴⁾ 시마네국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에는 국제교류과, 국제협력과, 서부지소 및 경제교류실을 두고 있는데, 이 중 사무차장은 국제교류과, 국제협력과, 서부지소를 관장하고 참사는 경제교류실을 관장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국 요원은 현 및 관련기관 단체의 직원과 국제센터 자체의 촉탁직원과 국제교류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1993년까지는 사무국의 하부조직이 없이 국제교류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인력이 업무를 처리하여 오다가, 1994년에 국제교류과와 국제협력과를 신설하였으며, 1995년에 경제교류실과 서부지소를 신설함으로써 현재에 이르렀다. 1997년 4월 현재 사무국 요원은 사무국장을 포함하여 35명(국제교류원 4명 포함)에 달하고 있다.

국제센터에는 1995년 1월 숙박시설을 갖춘 '시마네국제연수관'을 개관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국제교류원과 기술연수생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일본어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국제센터에는 자치단체 및 기업으로부터의 출연금 이외에 국제교류에 관심을 가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국제센터 운영 찬조회원과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기부 등록자를 모집하여 찬조금 및 기부금을 받아 운영비의 일부로 활용하고 있다.⁵⁾ 이외에도 국제센터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어학·일본문화

· 이벤트 · 유학생 자매가정 · 홈스테이 자원봉사자의 등록을 받아 이들의 도움을 받고 있다.⁶⁾

3. 국제교류인력

시마네현에서 국제교류업무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전담공무원은 1997년 4월 현재 총 18명으로서, 이 중 계장급 이상 간부 4명과 국제교류업무를 실질적으로 입안하는 실무자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실무자 14명은 일반직원 8명, 국제교류원 4명 및 자치체국제화협회 파견직원 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특별한 사업이 있을 때마다 실행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부서의 인력을 총원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1997년도에는 '동북아시아지역 교류의 선'사업을 위하여 6명의 직원을 총원받고 있다. 시마네현에서의 국제교류 활동은 현 국제과의 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마네국제센터 사무국의 35명의 직원과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다. 국제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서 현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4. 국제교류예산

시마네현의 국제교류관련 사업예산은 1997년 현재 환일본해(동해)교류 사업비 1억 6,803만 4천 엔, 국제센터 조성비 1억 5,363만 4천 엔, 국제협력촉진 사업비 1억 3,180만 9천 엔 등 총 6억 4,790만 8천 엔이다. 국제교류 관련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1995년 3억 439만 9천 엔, 1996년 5억 6,548만 4천 엔, 1997년 6억 4,790만 8천 엔으로 1995년에 비하여 1997년 예산은 2배 이상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시마네현 국제교류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시마네국제센터는 매년 현, 시정촌, 그리고 민간기업으로부터 사업비를 출연받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조성목표는 20억 88만 엔으로서 이 중에서 시마네현이 16억 1,250만 엔으로 전체 조성비의 대

부분인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정촌과 민간기업 등이 각각 10%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이 사업비는 1999년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1993년 말 현재 12억 7,568만 엔을 조성한 이래 매년 일정액을 조성하여 사업비를 증액하고 있다. 이렇게 조성한 사업비는 당해 년도에 모두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을 적립·운영하여 장래의 사업비 및 운영비에 충당하게 하고 있다.

5. 국제교류사업

시마네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교류사업은 크게 6개로 국제이해촉진사업, 국제정보 네트워크사업, 환동해교류사업, 시마네국제센터조성사업, 국제협력증진사업 및 외국인등록사업으로 나눌 수 있다. 사업별로 세분하면 국제이해촉진사업은 외국인청년초치(招致)사업, 국제교류원초치사업, 재주외국인공생사업, 국제이해증진사업으로, 국제정보 네트워크사업은 현도사(縣島使) 네트워크사업, 해외과전자 네트워크사업, 해외현인회 네트워크사업으로, 환동해 교류사업은 한국 경상북도 및 러시아 연해지방 교류사업,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및 길림성 우호교류사업, 환동해교류 서일본협의회 공동사업, 동북아지역 교류의 선 및 교류심포지엄 개최사업으로, 국제협력증진사업은 해외기술연수원 초치사업, 자치체직원 초치사업, 사비유학생 지원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사업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도시간 자매결연

국제교류사업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다. 1997년 3월 현재 47개 일본 광역자치단체 중 외국과의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39개 광역자치단체의 자매결연 현황을 보면 자매결연 도시수는 총 103개로서 중국이 33개로 32%, 미국이 19개로 18.4%, 브라질이 11개로 10.7%, 한국이 7개로 6.8%,

호주가 6개로 5.8%, 러시아가 5개로 4.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⁷⁾ 이는 일본의 대외정책과도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아시아지역에서는 중국과 한국, 미주지역에서는 미국과 브라질 그리고 러시아, 호주 등이 주요한 교류대상국이 되고 있다. 시마네현내 시정촌의 자매결연·우호제휴 현황을 보아도 중국이 12개로 35.3%, 한국이 10개로 29.4%, 미국이 5개로 15%를 점하고 있어서 자매결연지역의 편중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외국청년초치사업

외국청년초치사업(JET프로그램)은 외국어 교육의 충실과 지역수준의 국제교류를 진전시켜 외국과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국제화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지원하에 1987년부터 시작하고 있다.⁸⁾ 이 사업은 도도부현 및 정령지정도시가 주체가 되고 자치성·문부성·외무성 및 CLAIR의 협력하에 실시하고 있는데, 외국청년의 배치와 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사 및 시정촌장이 자주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성은 자치성·문부성·외무성 및 CLAIR에 의해 구성된 국제화추진연합협의회에 외국청년 배치활용계획을 상정하여 협의를 거친 후에, 국별 외국청년초치인 수를 결정한 국별초치계획을 책정하며, 그들의 보수·여비 등 사업의 소요재원을 지방교부세로 교부하고 있다.⁹⁾ 이렇게 하여 초치된 외국청년의 1994년 현재 단체별 배치상황을 보면 국제교류원이 194개 단체 320명, 외국어지도조수가 1,501개 단체 3,865명으로 도도부현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분을 배정받아 산하 기관·단체 및 학교에 배치하고 있다(自治體國際化協會, 1995).

초치된 외국청년은 국제교류원과 외국어지도조수로 나누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¹⁰⁾ 국제교류원은 지방공공단체의 국제교류담당부국 등에 배속되어 외국간행물 등의 번역 및 감수, 국제교류사업의 기획·입안 및 실시에 관한 협력과 조언, 외국 방문객의 접대, 이벤트 등

의 통역, 지방공공단체 직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어학지도의 협력, 지역 민간교류단체의 사업활동에 대한 조언, 지역주민의 다른 문화 이해를 위한 교류활동에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외국어 지도조수는 중·고등학교 및 교육위원회 등에 배속되어 일본인 교사의 외국어 수업의 보조, 외국어 교재작성의 보조, 외국어 교사에 대한 현직연수의 보조, 외국어그룹 등의 과외활동의 협력, 외국어 지도 주사 및 외국어 교사에 대한 어학관련 정보의 제공, 외국어 응변대회에의 협력, 기타 외국어에 관한 제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¹¹⁾

1987년부터 1994년까지의 외국청년초치자 현황을 보면 JET 프로그램이 처음 시작된 1987년에는 미국, 영국, 호주 및 뉴질랜드의 4개국에서 총 848명이 초치되었으나, 이듬해인 1988년에는 캐나다, 아일랜드가 추가되어 6개국 1,443명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이어 1989년부터 1991년까지는 프랑스와 독일이 추가되어 초치국가 수가 8개국으로 늘어났으며, 1991년에는 그 인원이 총 2,874명으로 1987년에 비하여 3배 이상의 괄목할 만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계속되어 1992년 중국, 1993년 한국, 1994년 러시아가 추가되어 1994년 현재 총 4,185명의 외국청년 초치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스포츠국제교류원은 프랑스, 독일, 러시아의 3개국에서 각각 2명씩 초치되어 모두 6명이 활동하고 있다.¹²⁾

시마네현의 경우 연도별 외국청년초치자 현황을 보면 외국청년초치 사업 시행 첫해인 1987년에 외국어지도조수 10명에 불과하던 외국청년초치자수가 10년째가 되는 1997년 현재 국제교류원 32명, 외국어지도조수 61명으로 총 9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시행년도에 비하여 9배 이상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는데, 현내의 59개 시정촌수를 감안하면 1개 시정촌에 1~2명씩 배치가 가능한 인원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1997년도 현재의 외국청년초치자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영어권이 76명, 프랑스 2명, 중국 9명, 한국 4명 그리고 러시아와 브라질이 각각 1명이며, 이 중에서 외국어지도조수는 모두 영어권의 외국청년으로 배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마네현에서는 국가적으로 시행하

는 외국청년초치사업과는 별도로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한국 경상북도와의 협정에 의하여 경상북도 공무원 1명을 초치하고 있으며, 중국으로부터도 국제교류원으로서 1명을 초치하고 있다. 1997년 현재 10명의 국제교류원 가운데서 현청에 6명, 국제센터에 4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영어권인 미국, 영국, 호주출신 국제교류원은 1988년부터, 한국, 중국 출신은 1993년부터 배치하고 있으며, 러시아 출신은 1994년부터 배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청년초치사업에 따른 시마네현의 소요예산은 1997년 현재 6,813만 8천 엔에 이르고 있다.

3) 국제정보네트워크사업

시마네현의 국제정보네트워크사업은 현도사(縣島使) 네트워크사업, 해외파견자 네트워크사업 및 해외현인회 네트워크사업으로 나누어 실시하고 있다. 현도사 네트워크사업은 시마네현에 장기간 체재하여 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귀국 후에도 현의 홍보자로서 활약이 기대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1990년부터 현도사 SFA(Shimane Friendship Ambassador)로 위촉하여 오고 있다. 1997년 4월 1일 현재 현도사로 위촉된 인원은 633명으로서 1996년부터 현의 각종 정보를 제공하여 시마네현을 세계에 널리 홍보하도록 하고 있다.

해외파견자 네트워크사업은 현(縣) 직원으로서 해외에 파견된 자를 대상으로 이들로 하여금 시마네현을 홍보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해외의 다양한 정보를 신속히 현에 전파하게 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월 1회 '해외파견자 소식지'를 발행하여 현내의 행정기관은 물론 각종 기관단체 등에 제공하여 활용하게 하고 있다.¹³⁾

해외현인회 네트워크사업은 세계 각처에 조직되어 있는 시마네현인회와 시마네현과의 협력을 통하여 해외에 교류의 거점을 확보하려는 데 목적을 둔 사업으로서, 1997년 현재 남미의 브라질에 1억 엔을 투자하여 현인회관을 건립중에 있다.¹⁴⁾

4) 국제협력사업

(1) 외국인초치사업

외국인초치사업은 외국자치단체직원 초치사업과 해외기술연수원 초치사업이 주요 사업 중의 하나이다. 외국 자치단체직원 초치사업은 1996년에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서, 외국 자치단체직원을 초치하여 일정기간 시마네현에서 행정 각 분야에 걸쳐 연수를 받게 하여 상대 자치단체의 발전에 기여하고 자치단체간의 교류친선을 도모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초치 현황을 보면, 1996년에 2명으로 타이와 인도네시아에서 각각 1명씩 초치되었고, 1997년에 중국에서 2명, 타이와 베트남에서 각 1명씩 총 4명의 자치단체 직원이 초치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중앙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로 지원받고 있다.

기술연수원 초치사업은 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등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협력하고, 우호친선을 돈독히 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가 개발도상국의 행정관,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업의 연구자, 중견기술자 등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연수를 실시하는 사업이다.¹⁵⁾ 연수는 집단연수와 개별연수로 나누어지는데, 집단연수는 개발도상국간의 구분없이 공통적으로 어학연수 및 일본문화 등에 관한 연수가 주가 되며, 개별연수는 집단연수가 끝나면 각국으로부터 요청을 받은 전문분야별로 실시하고 있다. 기술연수원 초치사업은 1954년에 처음 실시한 이래 매년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國際協力事業團, 1991). 시마네현의 경우 1981년부터 기술연수원을 초치하여 오고 있으며, 초기에는 주로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일본인이 많이 이주해 간 남미지역과, 방글라데시, 필리핀, 부탄 등 개발도상국이 대상국이었으나 최근에는 중국, 한국, 러시아 등 아시아 지역으로 그 대상국이 변화하고 있다. 연수분야는 농업, 건축, 축산, 수산, 간호 및 의료, 원예, 요리, 전산, 체육, 도예, 무역, 방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1차산업이 주가

되고 있다.

이 밖에도 시마네현에서는 1969년부터 외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2~3세를 대상으로 유학생을 초치하고 있는데, 1990년까지는 매년 1명씩, 1992년까지는 2년에 1명씩 초치하여 1997년 3월 현재 25명의 현 비유학생 초치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를 연도별로 보면, 1969년부터 1979년까지 총 12명, 1980년부터 1989년까지 총 10명, 1990년부터 1994년까지 3명으로 나타나고 있다.¹⁶⁾

(2) 청년해외협력대사업

청년해외협력대사업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남태평양 등 개발도상국가들에서 주민과 일체가 되어 당해지역의 경제·사회의 발전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의 해외협력활동이다. 외국청년초치사업이 외국인을 일본에 불러들이는 사업이라면, 청년해외협력대사업은 일본인 청년들을 외국으로 내보내는 사업인 것이다(國際協力事業團, 1991). 이 사업은 1965년에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일본에 대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파견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협력대원은 공모에 의해 선발되고 그 모집·선발업무는 각 도도부현의 협력을 얻어서 국제협력사업단의 청년해외협력대사무국이 관장하고 있다.¹⁷⁾

청년해외협력대원의 전국적인 파견실적은 1991년 3월 현재로 파견 중인 대원이 1,797명, 임무를 마치고 귀국한 대원이 8,671명으로서 총 1만 468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여성대원도 2,445명이나 포함되어 있다(國際協力事業團, 1991). 지방자치단체의 청년해외협력대 파견실적을 시마네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매년 5명 내외의 대원을 파견하여 1996년 3월 현재 파견된 해외협력대원의 수는 총 138명이며, 파견국은 42개국에 이르고 있다.¹⁸⁾ 이 사업에 참가하는 협력대원은 현지 생활비와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본국에서 지원받지만 보수의 성격을 지닌 대가는 받지 않는다. 이들의 활동은 수익사업이 아닌 봉사활동에 한정되고 현지주민의 수준과 동등한 생활을 하며, 현지언어로 말하고 현지의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면서 그 자조노력에 협력

하는 것이다. 이러한 청년해외협력대원들의 활동은 개발도상국의 일본에 대한 재인식 및 이해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일정기간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협력대원들은 현지에서의 활동을 경험으로 하여 향후 국제교류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5) 주민국제교류

주민의 국제교류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의 교류를 통해서 서로 간의 이해를 증진하는 방법과 해외여행 등의 수단을 통하여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과 직접 교류하는 방법이 있다. 먼저, 일본 국내거주 외국인과의 교류의 폭을 알아보기로 한다. 시마네현에 등록된 외국인 현황을 보면, 1996년 말 현재 3,336명의 외국인이 등록되어 있어 전체 현인구 77만 명의 약 0.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재일동포를 비롯한 한국인이 1,255명으로 38% 정도를 점하고 있으며, 중국인이 791명으로 24%, 필리핀인이 497명으로 15%, 브라질인이 409명으로 13%, 미국인이 83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중국인, 필리핀인, 브라질인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마네현 및 시정촌에서는 이들 외국인과의 주민 간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페어', '재주의국인 시마네현사진전' 등 각종 교류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민의 국제적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국제화추진월간》, 《시마네현의 국제화의 현상》 등 각종 잡지 및 자료집을 발간·배포하고 있다. 한편 시마네현을 방문하는 외국인관광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말 현재 17,745명으로 나타나 1990년도의 8,107명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어, 그만큼 외국인과의 교류기회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시마네현민의 해외여행 등 외국에 나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여권을 발급받은 주민의 수도 매년 꾸준한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주민의 국제감각을 키울 수 있는 기회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6. 결 어

시마네현은 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중의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우리나라의 자치단체에 비해 국제교류의 규모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며, 사업의 내용도 다양하고 충실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시마네현은 그것과 비슷한 규모의 자치단체인 한국의 경상북도와 자매 결연을 맺고 상호 교류를 하고 있는데, 영세한 경상북도의 국제교류와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수준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일본의 자치단체간 경제력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라 할지라도 제한된 예산의 범위에서나마 정책적 노력을 통해 국제교류의 프로그램의 내용을 다양화하고 충실화할 수 있는 전략적 방안을 수립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시마네현의 국제교류사례는 향후 한국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본보기로서 의미를 갖는다.

■ 주

- 1) 3부는 총무부, 조사부, 업무부이며, 6과는 총무부 소속의 총무과 및 기획과, 조사부 소속의 조사과 및 연락조정과, 업무부 소속의 업무과 및 지도과를 말하며, 3개 전문위원회는 운영전문위원회, 알선전문위원회, 카운셀링·연수전문위원회를 말한다.
- 2) 자치체국제화협회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自治體國際化協會, 1994:2~21). ① 해외사무소의 운영 : 해외사무소는 첫째,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의 해외방문시 방문처의 소개, 면담주선에서부터 자료수집까지 모든 편의를 제공하며, 여러 가지 인적·물적 사정으로 외국에 직원을 파견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들의 해외업무를 지원한다. 둘째, 외국의 지방행·재정제도와 지역 활성화방안을 연구하여 CLAIR의 간행물을 통하여 소개하고 있다. 셋째, 일본의 행·재정, 지방세, 선거제도 등과 여러 지역의 현황, 지방공공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화시책 등의 정보를 소식지를 통하여 해외 지방행정관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② 국제교류사업 : 국제교류사업으로는 첫째, 외국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들을 초청하여 일본 지방자치단체 간부와의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이해와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1993년 현재 미국, 영국에서 20여 명의 자치단체 간부

를 초청하였다. 둘째, 자치성과 외무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여 각종 세미나와 국제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③ 인재육성사업 :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국제 감각을 길러 주고 외국의 상황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각종 연수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0년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국제교류 단기연수는 3개월에 걸쳐 미국과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시찰하면서 외국어 연수를 받는 내용으로 짜여져 있다. 1991년 첫 연수생을 파견한 지방공무원 해외파견연수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을 약 1년간 외국의 공공단체나 대학에 파견시켜 외국 지방행정을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④ 정보수집 및 제공 : 국내외의 각종 자료를 수집·연구하여 이를 신속히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 지부·기타 관계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국제교류사업의 내용, 각국의 개황, 세계 도시지역의 상황, 일본의 국제자매도시 상황, 자매도시 교류사업의 개요, 신문의 주요 기사, 지역국제화협회의 조직 및 사업 등이다. ⑤ 자치체국제화 포럼 및 CLAIR 보고서 발행 : 지역의 국제화 활동에 유익한 국내의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매월 발행하고 있는데, 자치체국제화 포럼에는 각 계각층의 의견 및 제언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제화의 현상과 문제점을 도출, 향후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CLAIR 보고서는 해외 각 지역의 지방행·재정 사정, 개발사례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최신의 정보를 중심으로 분야별로 편집하여 발행하고 있다. ⑥ 국제화 강사 정보보급 및 지역국제화협회 지원사업 : 국제화의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강연회 및 심포지엄과 각종 국제교류사업을 위하여 경비 및 인력을 지원하고 있다.

- 3) 1995년 8월 (재)시마네현국제교류센터는 (재)시마네국제센터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 (재)시마네현국제교류센터는 1989년 11월 설립되었는데, 이는 1962년 3월 설립된 (재)시마네현해외협회를 개편한 것으로 1990년 1월 지역국제화협회로 인정되었다.
- 4)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상무이사·평이사 등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명의 감사와 25명의 평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장은 현 지사가 되고, 부이사장은 시장회회장과 상공회의소연합회 회두(會頭)가 되며, 상무이사는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다.
- 5) 1997년 4월 현재 찬조회원의 수는 개인회원이 191명에 202구좌(구좌당 3천엔), 단체회원이 23단체에 29구좌(구좌당 1만 엔), 법인·기업회원이 105사에 364구좌(구좌당 1만 엔)이며, 유학생 장학금기부 등록자는 개인이 48명에 69구좌(구좌당 5천 엔), 단체·기업이 1사에 1구좌(구좌당 12만 엔)이다.
- 6)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1997년 4월 현재 어학(영어를 비롯한 13개어) 자원봉사자 265명, 일본문화 자원봉사자 88명, 이벤트 자원봉사자 115명, 유학생 자매가정 27가정, 홈스테이 자원봉사자 121명, 기타 16명 등이다.
- 7) 일본에서의 자치단체간 자매결연은 1955년 12월에 나나사키시와 미국의 세인트폴 시 간에 최초로 이루어졌다.
- 8) 이 사업은 문부성의 영어지도 조수의 초치에 따라 영어교육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였지만, 자치성이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류원의 초치를 추가하고 외무성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많은 외국청년에게 일본에서의 현지 생활체험을 통하여 일본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것을 목적으로 한 청년교류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 9) 외무성은 국별 초치계획에 기초하여 재외공관을 통해 외국청년의 모집·선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렇게 선발한 외국청년을 각 지방공공단체에 알선하고 이들을 교육시키는 등의 업무는 CLAIR

가 담당하고 있다. 이 중에서 외국어지도조수에 대하여는 문부성이 학교 교육연수, 지도 및 상담을 행하고 있다.

- 10) 국제교류원은 CIR(Coordinator for International Relations)이라고 약칭해서 부르고 있으며, 이 중에서 스포츠국제교류원은 SEA(Sports Exchange Advisor)라고 부르고 있다. 외국어지도조수는 ALT(Assistant Language Teacher)라고 통칭하고 있으며, 언어권(영어, 불어, 독어)에 따라 AET, AFT, AGT라고 부르기도 한다. 외국청년의 모집은 매년 10월 경부터 12월에 걸쳐 재외공관을 통해 대학, 정부기관 등에 응모원서를 보내고 홍보를 한 후, 익년도 1월~2월중에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그 결과를 3월까지 통보한다. 응모자격은 대학 졸업자로서 3년 이상 일본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35세 미만의 심신이 건강한 자이며, 선발된 외국청년은 특별직의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공단체에 배치되어 1994년 현재 연간 360만 엔 정도의 보수 및 부임과 귀국시 여비를 지급받고 있다(自治體國際化協會, 1995).
- 11) 이들 외국청년의 근무조건은 주당 35시간 주휴 2일제이며,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간이나, 합의에 의하여 3년까지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 12) JET 프로그램에 의해 일본에서 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외국청년들이 친목단체로 구성한 JET 프로그램 동창회(JETAA : JET Alumni Association)는 1994. 8. 31현재 10개국에 38개 지부를 두고 회원수는 약 4,000명을 확보하고 있다. 이 단체는 회원상호간의 정보교환 및 각국에서 JET 프로그램의 모집·홍보활동에 협력하는 등 회원들이 일본에서의 경험을 활용하여 국제교류 촉진에 일조하고 있다.
- 13) 1997년 현재 한국과 중국에 각각 2명씩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한국에는 경상북도청과 자치체국제화협회 서울사무소에 각 1명씩, 그리고 중국에는 길림대학과 자치체국제화협회 북경사무소에 각 1명씩 파견하고 있다.
- 14) 시네마현인회는 브라질, 파라과이, 아르헨티나, 미국, 홍콩, 영국, 프랑스, 페루, 볼리비아 등에 13개가 조직되어 있다.
- 15) 기술연수원은 통상 10개월의 연수기간 중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와 출장비 등 연수경비의 일체를 지원받고 있으며, 연수분야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과 그 산하 연구기관, 대학 및 관련분야 전문기관·단체 등에서 연수를 받고 있다.
- 16) 이외에도 각종 장학금을 받고 있지 않은 사비유학생에 대하여도 일정인원을 선발하여 매월 3만 엔의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유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있다.
- 17) 파견대원의 훈련 및 파견기간(2년) 동안의 지원과 지도업무는 청년해외협력대 사무국 및 재외기관에 의해 이루어진다.
- 18) 1996년 현재 파견국은 42개국으로서, 5명 이상 파견실적이 있는 국가는 라오스, 케냐, 필리핀, 잠비아, 방글라데시, 통가, 네팔, 가나, 탄자니아, 파라과이, 모로코, 스리랑카 등이다.

■ 참고문헌

- 장병구. 1995. 외국의 자치단체 국제교류현황. 《한세정책》.
國際協力事業團. 1991. 《業務概要》.
島根縣. 1997a. 《島根縣職員錄》.
島根縣. 1997b. 《島根縣の國際化の現狀》.
自治體國際化協會. 1994. *Council of Local Authorities for International Relations*. 1994. 9:2~21.
自治體國際化協會. 1995. 《JET 프로그램》. 1995:1.